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이번 주에 모두 마치게 되는 계절학교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유치·유년·초등·사랑부의 겨울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모두 개최된다.

유치·유년·초등부는 23일(월) 오전 10시 1층 예배실에서 연합으로 개회예배를 드린 후 각 부서로 나뉘어 성경학교를 진행한다.

유치부는 23일(월) 하루 동안 어린이들로 하여금 중생의 확신을 갖게 하고 신행일치의 삶과 증인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예배와 찬양, 선타학습, 슬라이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년부는 "우리는 거대한 어린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틀간 성경공부와 성경이야기

극, 역할극, 공동체 게임, 유쾌한 운동회 등으로 구성된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초등부는 예배, 공과공부, 특강, 감사와 결단의 시간 등 말씀과 기도의 특별훈련 외에도 보물찾기, 비디오 상영, 성경퀴즈, 반별 찬송가부르기 대회, 특별활동시간도 갖는다.

중등부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27일(금) 오후 2시까지 1박 2일 간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 중등부 수련회의 목표는 "경건·사랑·절제로 새로와지는 중등부가 되는 것"이다.

고등부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1박 2일 간 경기도 일동에 위치한 한국중앙기독교원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사랑부도 2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일 성경학교를 개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미 수련회를 마친 청년부와 대학부에 이어 이번 주 모든 부서들이 계절학교를 마치므로써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본 주제로 한 올해의 겨울성경학교·겨울수련회는 모두 막을 내리게 된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2월 새가족 환영회

* 2월의 새가족 *

초창제 강애자 김경희 오세용 원계숙 진혜영
김옥경 변호민 음영경 주복순 홍학수 조규범
노동환 정병화 오순배 정성모 강경희 김미경
김득수 정영자 이정석 이남경 차금옥 오수연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번 주에 개최되는 겨울성경학교·겨울수련회 일정 ■

부서	실시일	장소	강사
유치부	23일(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30분	별관 유치부실	이종윤 목사, 신미숙 전도사
유년부	23일(월) ~ 24일(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3층 유년부실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초등부	23일(월) ~ 24일(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2층 초등부실	이종윤 목사, 이상득 목사
중등부	26일(목) ~ 27일(금), 1박 2일간	3층 소망부실	이종윤 목사, 민영수 목사, 박귀환 목사
고등부	23일(월) ~ 25일(수), 2박 3일간	한국중앙기독교원	이종윤 목사, 이순환 목사, 김정현 목사
사랑부	26일(목)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별관 사랑부실	이종윤 목사, 김성숙 전도사

서울성경대학 등록 접수 중

평일에 말씀을 공부하는 서울성경대학 제 3학기가 3월 30일(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학기에는 세번째 학기를 맞이하는 욕기 반(아담반)을 비롯하여 사사기 반, 에스더 반, 히브리서 반, 빌립보서 반 등의 강좌가 개

설되었다. 또 음악교실도 두 번째 학기의 문을 연다. 이번 학기 강의 시간은 월·화·목요일에 오전과 오후 각 1시간씩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성경대학 제 3학기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등록금은 각 과목당 오천원이거나 이번 학기에 처음 수강하는 성도에 한하여 입학금 오천원을 별도로 받는다.

제 3학기 서울성경대학의 강좌, 시간, 강사는 <표>와 같다.

서울성경대학 제 3학기 교과과정표(3~6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사사기	월요일 오전 10시	김정현 목사	3월 30일
에스더	월요일 오후 8시	민영수 목사	3월 30일
히브리서	화요일 오전 6시	이순환 목사	3월 31일
빌립보서	화요일 오후 8시	박귀환 목사	3월 31일
욥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월 2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이연숙 집사	4월 2일

사이비 축복

종교 비슷하나 종교가 아닌 것을 사이비 종교라 하듯 축복 비슷하나 축복이 아닌 것을 사이비 축복이라 한다.

불로소득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횡재만 바라고 사는 자는 불로소득을 원하는 자니 창조원리를 깨뜨린 자요 다른 사람에게 나태와 부정을 조장하는 자며 쉽게 얻은 재물 인고로 낭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다.

부정한 소득은 축복이 아니다. 무슨 짓을 해서든지 소득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부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다.

모든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님! 축복 비슷한 것은 축복과는 먼 것임을 알게 하소서!"

이사야

모든 질서가 깨어짐

3장 1-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지 살펴봅시다.

1. 의지하는 인간을 제거하심

인생은 그 호흡이 코에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그 능력은 허망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기대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다보면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는 자를 제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1절). 사람들은 누구나 버림받처럼 의지하는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옆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앗시리아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부 침령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양식과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존한 물과 양식을 모두 제거하여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도 제거하여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남편을 의지하고 산다거나 자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2.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우심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시는 방법 가운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4절).

여기서 아이들이란 지적 수준이 낮은 자,

분별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경험이 많은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자들로 하여금 나라

를 받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 미래가 없는 백성

의복이 있는 자가 관장이 되라고 했더니(6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7절).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

“보라 추만군의 여호와께서 에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여 버리시되...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살해하며 아이기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있으나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사3:1-7).

이종운 목사



를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적자란 양자에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사람, 쫓대없는 사람, 갓난 아기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지도자가 이와 같다면 그 나라는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아무런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5절).

이것은 하극상을 말합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그 사회에 하극상 현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백성은 서로 학대하며 노소의 예법이 무너져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는 의복이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6절).

이 말씀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의복을 입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의복이라도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관장이 되어 황폐한 지경에 빠진 것을 수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

는 것이라면 이것은 고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는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는 양심이 타락한 사회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백성되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진다고 해서 지도자만 원망하면 안됩니다. 기도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본래의 문제는 죄입니다. 민족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 때문에 민족과 사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뿐 아니라 그리고 속히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새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새 대통령께 드리는 세 가지 기도제목”

이종운 목사

어둠이 짙을수록 밤하늘의 별빛은 찬란하게 비친다는 말은 새로 취임하시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명언이라 사료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수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오늘의 위기는 참으로 극복하기 힘든 국난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기보다 본인은 새 대통령님을 위해 세 가지 기도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결단 보지 마시고 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려 합니다만 우리 대통령님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국민운동을 유도해 내는 것도 중요하고 IMF를 1년 반 만에 졸업시켜 주시겠다는 말씀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이 나라 위기를 단순한 금융위기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책임있는 이들이 도적질을 하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권력을 빌미로 자기 이권을 챙기는 나라, 공신력의 대명사인 은행을 믿을 수 없고 양심의 지팡이가 될 법조인들이 뇌물을 주고 받으며 사람의 복숨을 책임진 의료인들의 부정과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대학교수가 뒷거래되는 이 현실에서 금융위기 타개만 하면 나라가 안전하고 부강케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외모로만 보지 않고 내면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대통령님에게 이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둘째는 진실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가리고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어느 철학자가 당시 영국 사회를 보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그런데 삼각형의 내각이 250도가 되면 귀족이 평민으로 바뀌지도 않고 부자가 가난해 지지도 않고 권력층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250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며 또 주장이 통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고에는 뚜렷한 법칙이 있게 마련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이며 또 그래야 하듯이 우리는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조작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은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며 그것을 백성에게 강요하지만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면 허위는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진실 위에 입각해서 모든 사리를 가리고 가치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누가 조작하

거나 바꾸어도 안되고 진실 위에 내려진 판단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언제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외면한 채 사리의 정당성을 찾거나 자기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기초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위험할 것이고 집이 크면 클수록 그 무너짐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정치는 모름지기 권모와 술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면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와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객관적 가치 추구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미래의 의미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하여 어떤 결과가 되기를 바라기 쉽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때로는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 전체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해결치 않고는 미래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 서로 해치며 은혜를 갚기 위해 끼리끼리 사는 폐습 때문에 결국 국가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간 원인을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새 대통령님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신앙을 갖고 그 분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부디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이 나라 지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새가족이 되고 보니

안으로 복음에 굳게 서서

밖으로 복음을 펴는 교회

박소영 (새가족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서울교회에 왔을 때 가장 처음으로 접한 말씀이다. 건물 앞에 쓰인 이 성경 구절을 보았을 때, 나는 내 마음이 떨렸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자신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 우뚝서 계신 예수님, 그를 믿지 못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엄위하신 명령에 머뭇거리고 있는 마르다. 그 가운데 불호령같이 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11:40).

나는 ‘아버지, 저의 돌문을 믿음으로 열어 드립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십시오. 내가 할 일은 오직 불신앙의 돌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라고 기도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 때 나는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다. 무너져 있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확신과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구하고 있었다.

처음 드린 예배에서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권세와 책임에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또 온 성도들이 위기를 당한 한국 민족과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은 놀라웠다. “가난한 나라의 배고픔을 깨달을 수 있게 저희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라고 고난을 자청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기도예찬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회개와 개혁의 요구가 높아가는 이 때 서울교회 어른들께서 한국교회갱신을 위해, 또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은 아직 청년인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처음 찾아간 새가족부에서 어색해 하지 않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시고 항상 웃으시며 애찬을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 분들께서는 품소 참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또한 매주 발송해 주시는 새가족을 위한 편지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읽을 수 있었으며 큰 도움이 되었다. (4면에 계속)

(3면에서 계속) 복음의 권위가 우뚝 선 교회, 안으로만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교회, 내가 본 서울교회의 인상은 이 두 가지였다.

내가 출석하는 대학부에서의 감동도 빼놓을 수 없다. 바른 신앙관을 정립해 주시기 위해 힘쓰시는 지도 목사님,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 열심인 조원들, 그것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는 조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IMF 환파를 성경적인 견지에서 이해하려고 하며 그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려는 모습들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밖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다. 또한 어

는 선생님들은 직장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대학생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데는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다. 교회당에 쓰여 있는 말씀대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다.

서울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적응을 돕기 위해 사랑으로 섬겨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나도 부족하지만 가진 것으로 충성되고 진실되게 섬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사순절의 묵상

시험을 극복함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시험과 유혹 없이 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하며 사탄이 우리를 속여 득세하지 않도록 기도으로써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벧전5:8).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따금 유혹을 받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경건하지는 못하다. 또 유혹이나 역경이 전혀 없을 만큼 신성한 사회도 없거니와 그토록 은밀한 장소도 없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유혹이나 시험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다. 우리의 본성에는 유혹의 뿌리가 있으며 아담 이후 죄악의 성향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나의 시험과 유혹이 지나가면 또다른 시험이나 유혹이 다가온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인내로써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끔 내면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조금씩 조금씩 꾸준한 인내와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유혹과 시험을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충고와 자문을 구하도록 하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거칠게 대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위안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어야 한다.

모든 유혹의 시초는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핍 때문이다.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

2월은 민족회개의 달

■ 우리는 오늘 'IMF 사태'라는 국란을 맞아, 이는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채찍으로 겸손히 받아들여 참회를 통해 국가의 회생을 기하고자 민족회개의 달에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 ① 우리는 오늘의 비통한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믿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좇던 불신, 불충, 불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매일 정오에 '회개 기도'를 드린다.
- ② 우리는 이같은 회개운동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1998년 2월 한 달을

'민족회개의 달'로 정하고 각자 회개의 표현으로 가슴에 '메 리본'을 패용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한다.

- ③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그리고 건전한 국민으로서 정직, 절제, 사랑을 실천할 때 민족의 살 길이 있음을 확신하며 이를 국민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생활개혁에 힘쓴다.

스테반회 특별기도회

스테반회(간사 임훈규 집사)는 2월 27일 오후 9시 2층에 배실에서 특별기도회를 가진다.

금요심야기도회에 맞춰 모이는 이날의 기도회에서는 "민족회개의 달"인 2월을 마감하면서 합심하여 회개 기도를 드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한편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또 이번 기도회는 스테반회의 연합과 기도력 강화를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어 스테반회 회원 전원의 참석이 요망된다.

바로 잡습니다

순례자 지난 호 "회개의 절기 사순절 시작" 기사 중 사순절의 시작은 지난 주가 아니라 이번 주로 바로 잡습니다. 또 올해의 부활절은 4월 5일이 아니라 4월 12일로 바로잡습니다.

◆이종운 목사는 23일(월) 비전2020운동본부 개설감사예배 및 세미나를 주관하고 "비전2020 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이라는 제하의 특강. 26일(목)·27일(금)에는 숭실대학교 주류목회자세미나에서 "예배에 대한 해석"에 관해 강의.

◆김용이 성도(4교구)는 16일(월) 노보텔 지하 1층에 '이화명주' 개업(☎ 567-1282).

◆김규태 집사(4교구)는 19일(목) 서초동에 '태산스페이스' 이전 개업(☎ 3477-4181-4).

◆하인선·남태순 집사(2교구)는 28일(토) 군포성심신경외과가정의학과 병원개업(☎ 0343-52-8700).

◆오늘 점심식사는 조정식·김영식 집사 가정에서 제공.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X 89.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미디어 감동' 주일 오전 8시30분~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20분~4시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겨울성경학교·겨울수련회를 위해
2. 취임하는 새 대통령을 위해
3. 새가족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적응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교회위치

